

##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 (사 61-62 장)

### I. 도입

- A. 예수님께서서는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이 있으시며,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영원히 사할 것이다.

<sup>2</sup> ...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sup>3</sup>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속 8:2-3)

- B. 이사야 60-62 장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영광과 부르심에 대한 가장 자세한 예언적인 설명일 것이다. 이사야 60 장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와 기쁨의 시민들, 그리고 큰 부로 가득 찬 것을 설명한다. 이사야 61 장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영광을 가져오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을 소개한다. 이사야 62 장은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이 가진, 예루살렘과 이곳의 충만한 부르심을 향한 열정을 보여준다.

### II. 이사야 61 장: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광을 가져오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

- A. 이사야 61 장은 이사야 60 장에서 선언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광을 가져오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의 사명을 소개한다. 이 변화는 이스라엘 각 개인의 변화와(1-3 절), 재건된 이스라엘 도시(4 절), 이스라엘의 농장과 가축과 (5 절), 이스라엘의 리더십 (6 절),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7 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 그리고 열방에 미치는 이스라엘의 사역의 영향력 (8-11 절)의 부분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정의와(8 절) 공의를(10 절)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온 땅에 세우실 것이다.

- B. 이사야 60 장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계속될 완전히 의로운 사회가 될 것을 묘사하며 끝난다. 이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메시아)을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다. 메시아와 그분의 임무는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구절에서 이사야에 의해 묘사된다 (61:1-3, note v. 3f).

<sup>21</sup>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사 60:21)

- C.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신다 (사 61:1-3).

<sup>1</sup>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sup>2</sup>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sup>3</sup>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3)

- D.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억눌리고 슬퍼하는 백성들의 영적, 감정적, 재정적, 육신적, 사회적으로 포로 되었던 깨어진 삶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사야 60:21 절에 선포된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로 변화시키길 것이다.
- E. 전쟁 때에 사로잡힌 자들은 포로가 되거나, 경제적이거나 영적인 이유들로 묶여있게 된다.
- F. 예수님께서서는 깨어진 삶과 황폐한 도시, 그들의 농장과 가축들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61:4-7).
- <sup>4</sup> ...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sup>5</sup>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sup>6</sup>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 <sup>7</sup>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 61:4-7)**
1.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충돌로 인해 파괴된 이스라엘의 도시들과 농장들의 재건을 돌아보실 것이다 (4 절). 이 도시들은 나무나 돌이 아닌, 금과 은, 놋, 철과 같은 비싸고 오래 견디는 재료들로 영광스럽게 재건될 것이다(49:8, 19; 54:3; 58:12; 60:10, 17-18).  
**<sup>17</sup>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 (사 60:17)**
  2. 그들의 농장, 가축과 농작물들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5 절). 핍박하던 자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목동과 농부로 섬길 것이다. 이 이방인들의 노동은 강제로 강요되거나 보복의 차원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한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될 것이다.
  3.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들에서 일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6 절).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섬길 것이다.
  4.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7 절).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 21:17).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다 (출 4:22). 이 갑절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 G. 우리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의 성품과 신실함을 볼 수 있다 (8-9 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일하심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도적질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신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헌신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며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렘 32:40),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도적질을 미워하시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훔쳐갔음을 아신다.
- <sup>8</sup> **무릇 나 여호와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한글 KJV: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sup>9</sup>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 61:8-9)

- H. 이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기쁨을 가지고 일하신다 (10-11 절). 이사야 61:10-11 절은 이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열방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기름부음 받은 옷”을 자신에게 주심을 기뻐하는 노래이다 (61:1-3).

<sup>10</sup>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걸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sup>11</sup>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 61:10-11)

### III. 이사야 62 장: 예루살렘과 이곳의 부르심을 향한 기름 부은 받은 한 분의 열정

- A. 우리는 이사야 62 장에서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충만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주님의 열정에 찬 결심을 볼 수 있다. 이 장은 이사야 60-61 장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예루살렘의 변화는 이사야 61:11 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전 세계적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 B. 이 예루살렘의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예루살렘이 충만한 부르심 가운데 설 때까지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실 것에 대한 그분의 헌신의 마음이다. 이 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이 의와 영광으로 가득 차며 (1 절) 예루살렘이 이를 열방에 전할 때까지 (2a 절) 주께서 개입하실 것에 대한 결심, 또 예루살렘을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새 이름 (2b-5 절),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위한 중보자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그분의 약속 (6-7 절), 예루살렘이 다시는 억압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분의 맹세 (8-9 절),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기름부음 받은 한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것에 대한 결심을 볼 수 있다 (10-12 절).
- C. 주께서는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가득 찰 때까지 개입하실 것을 결심하셨다 (1 절). 대부분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이사야 62:1, 6a, 8, 61:8-11 절의 화자를 하나님 또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으로 본다.

<sup>1</sup>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나타나기 전에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사 62:1)

-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대해 잠잠하거나 쉬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해 말씀하시며 행동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조용하며 잠잠하시며, 자신들을 구원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에도 대해 “잠잠하신 것”에 대해 불평했다 (사 42:14; 45:15; 57:11; 64:12; 65:6).
-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공의가 해와 같이 빛나며, 예루살렘의 사역적 영향력이 열방에 햇불(등잔)과 같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해나 햇불에 비유하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사 60:1-3).

- D. 주께서는 예루살렘이 일어나 자신들에게 부여된 것을 열방에 전하도록 하실 것이다 (2a 절).  
<sup>2</sup>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사 62:2a)
- E.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에 근거한 것이다 (2b-5 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이름은 예루살렘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며,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나갈 것을 말하고 있다.  
<sup>2</sup>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sup>3</sup>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sup>4</sup>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sup>5</sup>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2-5)
- F. 예루살렘은 왕을 위해 디자인된 아름다운 면류관에 비유되며, 이 왕은 이 면류관을 자신의 손에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귀하게 여기고 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손에 면류관처럼 붙잡고 계시는 것으로 그러지며, 그분은 자신의 특별한 보물처럼 이를 조심스럽게 보호하실 것이다 (출 19:5; 말 3:17).
- G. 2 절에 약속된 새 이름은 헵시바(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신다)와 뿔라(결혼한 바가 됨)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며, 그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시 149:4).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는 영구적인 충성된 사랑의 관계가 있게 된다. 예루살렘 땅은 그곳에 영원히 살며 그곳을 큰 사랑과 관심으로 돌볼 거주민들에 의해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 H. 주님은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위해 부르짖을 중보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6-7 절). 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다. 이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 세대 안에, 그분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24/7 계속되는 기도 사역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사야 60-62 장의 약속들이 풀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번영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sup>6</sup>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중보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sup>7</sup>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I. 주님은 예루살렘이 다시는 억압당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신다 (8-9 절).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일하는 자들이 대적들에게 자신의 추수물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먹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다. 다시는 이방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로부터 힘들게 얻은 양식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sup>8</sup>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sup>9</sup>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사 62:8-9)

- J. 예루살렘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은 기름부음 받은 한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10-12 절). 이사야 60-62 장은 행동을 취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끝난다 (사 60:1; 62:10-12). 이사야는 3 가지를 강조한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라 (10 절),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11 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찾아온 바가 될 것이라 선포하라 (12 절).
- <sup>10</sup>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방인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sup>11</sup> 여호와께서 땅 끝[이방 나라들]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한글 KJV: 그의; 예수님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sup>12</sup> 사람들이[이방인들] 너[예루살렘]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온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 62:10-12)
- K.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다 (10 절).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대로를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한다. 첫째,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도록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이는 흠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사 11:12, 16; 35:8; 49:11, 18; 60:4). 셋째, 이는 백성들, 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사 19:23; 슥 14:16-18).
- L. 주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향해 기도하며, 선포하며, 노래함으로 열방에 증거할 것을 원하신다 (렘 31:7-10).
- <sup>7</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 <sup>10</sup>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렘 31:7-10)